

경남문화재단 내년 발족..지역 문화예술 지원

2025년까지 1천억원 조성..관 주도 탈피해 고객지향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경남지역 문화 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에 편중된 문화예술이 지역에서도 꽃 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경남문화재단이 내년 1월 창립된다.

경남도는 10일 오후 서마군 행정부지사와 도의원, 도내 분야별 예술계 인사 등 40여명의 발기인들이 모인 가운데 경남문화재단 발기인대회를 가졌다.

내년 1월 창립총회를 거쳐 공식출범할 경남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출자전환과 도 일반회계 출연금 등 114억의 기본재산으로 출발, 2025년까지 1천억원을 적립할 계획이다.

이 재단은 급변하는 문화행정 환경변화에 맞춰 분야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기구로서 관 주도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전문가와 함께 하는 고객 지향적 시스템으로 변화시킨다는 구상이다.

경남문화재단은 또 출범기와 도입기, 정착기, 성숙기로 나눠 초기엔 문화예술 창작활동 기반을 구축하고 경남예술사랑 티켓제,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을 중점추진할 계획이다.

이후에 재단은 문예단체와 기업 메세나 등 민간협력사업을 강화하고 문예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축제 기획과 문예단체 공연 컨설팅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부산, 경기 등 8개 시·도에서 문화재단을 갖고 있고 경북 등 상당수 지자체도 문화재단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

서마군 부지사는 이날 "경남은 지리산과 낙동강, 남해안으로 대표되는 풍요로운 자연과 찬란한 문화예술의 전통을 갖고 있다"며 "재단은 앞으로 지역 문화자원을 세계인의 문화예술로 재창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940512@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9-11-10 14:42 송고]